

프랑스오픈 우승 나달, 세계랭킹 2위 도약

남자 단식 결승 스탠 바브링카 3-0으로 완파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에서 10번째 우승을 차지한 라파엘 나달(31·스페인)이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섰다.

프랑스오픈이 끝난 12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에서 나달은 종전 4위에서 2위로 두 계단 올라섰다.

나달은 11일 프랑스 파리의 롤랑 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스탠 바브링카(스위스)를 3-0(6-2 6-3 6-1)으로 꺾고 우승했다.

나달인 세계랭킹 2위에 오른 것은 2014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2013년 10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세계랭킹 1위를 지켰던 나달은 2014년 10월 중순 2위에서 3위로 내려왔고, 손목과 무릎 부상에 시달리면서 2015년 6월 10일까지 내려왔다.

올해 초 상승세를 자랑한 나달은 다시 선두권 진입에 성공했다.

프랑스오픈에서 4강까지 오른 앤디 머레이(30·영국)는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다. 머레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준우승을 차지한 바브링카가 세계랭킹 3위를 유지한 가운데 노박 조코비치(30·세르비아)는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조코비치의 세계랭킹이 4위까지 내려간 것은 2009년 10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올 시즌 초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조코비치는 올해 프랑스오픈 8강에서 탈락했다.

임블단에 집중하겠다는 프랑스오픈 출전을 포기한 로저 페더러(36·스위스)의 세계랭킹은 5위로 변동이 없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1·한국체대)은 세계랭킹을 58위로 끌어올렸다.

세계랭킹 67위였던 정현은 이번 프랑스오픈에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3회전 진출을 일궈 세계랭킹이 9계단 상승했다.

정현의 개인 최고 세계랭킹은 2015년 10월의 51위다.

프랑스오픈 3회전에서 정현을 꺾고 8강까지 오른 니시코리 게이(28·일본)는 세계랭킹 9위를 유지했다.

여전히 아시아 남자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다.



라파엘 나달(31·스페인·세계랭킹 4위)이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 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스탠 바브링카(32·스위스)를 3-0(6-2 6-3 6-1)으로 꺾었다. 개인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한 후 기뻐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스페인-이탈리아, 러시아월드컵 유럽예선 승리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018 러시아월드컵 유럽예선에서 나란히 웃었다.

스페인 12일(한국시간) 마케도니아 스키프에서 열린 유럽예선 C조 6차전에서 마케도니아를 2-1로 꺾었다.

5승1무(승점 16)를 기록한 스페인은 이탈리아(5승1무·승점 16)에 골득실(스페인 +18·이탈리아 +14)에서 앞선 선두를 질주했다. 지난해 6월 유로 2016에서 이탈리아에 0-2로 진 이후 1년째 A매치 무패다.

스페인 12일(한국시간) 마케도니아를 2-1로 꺾었다. 전반 15분에는 다비드 실바(맨체스터 시티)가 오른발 터닝슛으로 마케도니아의 골문을 열었다. 12분 뒤에는 이스코(레알 마드리드)의 패스를 받은 디에고 코스타(첼시)가 두 번째 골까지 터뜨리며 승리를 예고했다.

전반을 두 골차로 마친 스페인은 후반 21분 스테판 리스토프스키(리에카)에게 한 골을 헌납했다. 리스토프스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은 뒤 빠른 스피드로 수비수들을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슛을 날려 득점에 성공했다.

일격을 당했지만 스페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스페인은 남은 시간 마케도니아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승리를 지켰다.

같은 조의 이탈리아는 리히텐슈타인을 5-0으로 대파했다. 1-0으로 앞선 후반에만 4골을 퍼부었다. 5골 모두 다른 선수로부터 나왔다.

유로 2016을 통해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아이슬란드는 크로아티아를 1-0으로 꺾었다.

아이슬란드는 크로아티아와 4승1무1패(승점 13)로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골득실(크로아티아 +9·아이슬란드 +3)에 밀린 2위에 자리했다.

[조는 터키, 우크라이나(이상 3승2무1패·승점 11)를 포함한 4개팀이 승점 10점을 넘기며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김민근기자

MLB 추신수, 이틀 연속 '대포' ... 최고의 기량 뽐냈다

워싱턴과 경기서 1번 타자 겸 우익수 선발 출전 홈런포함 3타수 2안타 1타점 1볼넷 1득점 기록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1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1회초 좌전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며 패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워싱턴전에서 홈런을 때려낸 추신수는 이틀 연속 대포를 쏘아올렸다.

지난 7일 뉴욕 메츠전 이후 4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때려낸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9에서 0.255(192타수 49안타)로 올라갔다.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29개로, 시즌 득점은 33점으로 늘었다.

슈어저를 상대로 강세를 자랑하던 추신수는 이날도 역시 본인의 기량을 뽐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추신수는 슈어저 상대 타율이 0.571(21타수 12안타)에 달했다.

슈어저를 상대로 홈런 두 방, 2루타 두 방을 때려냈다. 슈어저 상대 장타율이 1.048였다.

추신수는 첫 타석부터 슈어저 공략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풀카운트 상황에서 시속 97마일짜리 7구째 직구를 노려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후속타 발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팀이 0-1로 끌려가던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슈어저의 5구째 시속 98마일(약 158km)짜리 직구를 통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이치를 그려냈다.

/김민근기자

KBO리그 공인구 2차 수시검사 '합격'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7 타이타늄 KBO리그 경기사 용구 2차 수시검사 결과 모두 합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KBO리그 단일 경기사용구인 (썬스카이라인 AAK-100)의 샘플 3타를 무작위로 수거,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용품시험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검사 결과 3타의 샘플 모두 합격기준에 적합했다.

AAK-100은 지난해부터 KBO리그 시범경기과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까지 전 경기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KBO는 12일부터 '유소년·아마추어 대회 및 야구 캠프 운영'을 담당할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을 통해 12세 이하(U-12)·15세 이하(U-15) 유소년 대회와 웰링저스 직강인 야구대회, 레전드 야구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